

## JUVENILE TITLES

### FICTION

제목 : PULP

가제 : 펄프 픽션, 두 사랑에 대한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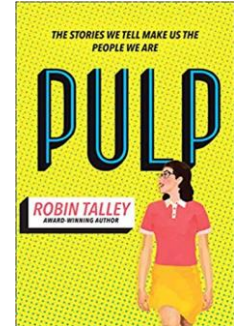
저자 : Robin Talley

출판사: HQ Young Adult

발행일: 2018년 12월 13일

분량 : 413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2020년 CILIP 카네기 메달 수상 후보작

★ "동성애를 죄악시하던 시대에 레즈비언 침대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고립에 대해 잘 보여주는 소설."- 「스쿨 라이브 저널」

1955년, 열여덟 살 소녀 자넷 존스는 가장 친한 친구와 비밀스러운 사랑을 하고 있다. 매카시즘 시대, 미국에서 동성애는 죄악이나 마찬가지로였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자넷은 여자 여자 사랑에 빠지는 내용이 등장하는 책을 발견하게 되고 이 책 속의 문장들은 그녀의 세계에 지각변동을 일으킨다. 그리고 자넷 역시 마리와 자신의 사랑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주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된다. 한편 62년 후, 곧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애비 코헨은 어느 날 '마리안 러브'라는 이름을 가진 작가를 알게 되고 그녀의 글을 읽으면서 특별한 유대감을 느끼게 된다. 전혀 다른 시간대에 살고 있는 두 여성이 글이 가진 마법 같은 힘을 통해 연결 되게 되는 환상적인 이야기이다.

2017년, 워싱턴에 살고 있는 애비 지멧은 속 시끄러운 집안 일과 애정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중이었다. 전 여자 친구인 린과는 이제 공식적으로 연인에서 친구가 되기로 했지만 여전히 이별을 받아들이는 일은 쉽지 않았다. 지난 6월 린은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베트남에 다녀온 이후로 애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그 이상한 전조 증상들은 결국 이별로 이어지고 말았다. 린은 애비에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고등학교 졸업 에세이의 주제를 두고 고민을 털어놓았지만 애비는 그저 린이 자기에게 말을 걸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얼굴이 붉어졌다. 린은 여전히 애매모호한 태도로 애비의 마음을 어지럽혔고, 이 상황 속에서 애비는 도저히 무슨 주제로 시니어 프로젝트 (Senior Project, 미국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이 대학 지원 시 반영되는 학점을 따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주제로 연구 에세이를 쓰거나 발표하는 제도) 에세이를 써야 할지, 대학 지원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제대로 고민조차 할 여유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린은 애비에게 1950년대 레즈비언 펄프 픽션, 즉 통속 소설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던지시 알려주었다. 여성 간의 성애를 다룬 1950년대 펄프 픽션들은 린과 애비의 상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작품들이었다. 지금과 달리 이런 소설들에 대한 강력한 탄압과 검열이 있었던

1950년대에 이런 소설이 있었다니 애비와 린에게는 그야말로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 중에서도 애비의 마음을 사로 잡은 작가는 바로 ‘마리안 러브’라는 이름을 가진 작가였다. 그녀의 작품 중 ‘황혼의 왕국의 여인’이라는 작품 속 주인공인 엘레인은 애비와 비슷한 또래였고 이미 실연을 한 번 당한 경험이 있는 여자였다. 문득 애비는 누가 엘레인의 가슴을 그토록 아프게 했는지 궁금해졌다. 애비와 린이 책을 훑어보고 있는 동안 마침 학교 종이 울렸고 그제서야 애비는 오늘이 슬로언 선생님과 시니어 프로젝트를 두고 상담을 하기로 한 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문제는 애비가 프로젝트 주제조차 제대로 정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었다. 애비는 슬로언 선생님에게 얼떨결에 방금 전 잠깐 인터넷으로 찾아보았던 1950년대 레즈비언 펄프 픽션들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다. 놀랍게도 슬로언 선생님은 그 소설들에 대해 조금은 알고 있는 눈치였고 현대적인 관점으로 그 당시 쿼어 소설들을 다시 분석해보고 싶다고 말하는 애비의 말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모든 것은 당황한 애비가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하여 생각해낸 것들이었지만 덕분에 상담은 순조롭게 흘러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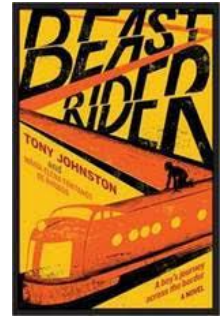
1955년, 애비의 또래인 자넷 존스는 애타게 한 편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현관에 우체부가 오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자넷은 두근대는 마음을 애써 티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현관으로 달려갔다. 자넷은 이주 전 버스 정류장에서 우연히 책 한 권을 발견했고 그 소설에 빠져든 그녀는 단숨에 그 책을 다 읽어버렸다. 자넷은 자신의 인생을 흔들여 놓기 시작한 그 이야기를 쓴 작가에게 편지를 썼고 지금은 그 작가의 답장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마침내 편지를 받고 들떠있는 자넷을 보며 자넷의 엄마가 대체 그게 무엇이나고 물었지만 자넷은 그저 대학에서 온 편지라고 거짓말을 해야 했다. 왜냐하면 그 작가의 소설은 단순한 소설이 아니라 자넷처럼 한 여자 또 다른 한 여자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사실 자넷 역시 자기보다 한 살 많은 여성인 ‘마리’를 사랑하고 있었다. 둘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학창 시절 내내 붙어 다녔던 단짝 친구에 불과했지만 자넷은 마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고 마리는 그 마음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있는 중이었다. 자넷과 마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여성간의 사랑이란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자넷은 이 책 덕분에 스스로 레즈비언임을 인정하고 행복한 사랑을 꿈꾸게 되었다. 자넷은 하루라도 빨리 마리에게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녀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었다. 하지만 자넷과 달리 마리는 모든 것을 잃을 것을 각오하고 사랑을 선택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다.

애비와 자넷은 서로 다른 시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십대 레즈비언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 소설은 실제 역사적인 배경을 소설 속에 차용하여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 두 레즈비언 청소년의 삶을 대조하여 두 인물이 한 작가의 글들 덕분에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을 다룬 놀라운 이야기이다.

#### <저자 소개>

로빈 탈리는 (Robin Talley)는 십대 독자들을 대상으로 LGBTQ 소설을 쓰고 있는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사면 위원회(CILIP)에서 수여하는 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제목 : BEAST RIDER  
가제 : 비스트 라이더  
저자 : Tony Johnston, Maria Elena Fontanot de Rhoads  
출판사: Amulet Books  
발행일: 2019년 3월 19일  
분량 : 192 페이지  
장르 : 모험



- \* “마누엘의 여정은 잔인한 실제 현실과 맞닿아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소설은 낯선 이들이 베푸는 친절과 사랑이 이 소름끼치는 이야기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있다는 희망 또한 보여주고 있다.”  
- 「북리스트」
- \* "이 소설은 지극히 개인적이며 실감이 넘치는 작품이다. 이 이야기는 결코 이민이라는 문제가 가진 복잡함을 해결하려한다거나 낭만화하지 않는다." 「스쿨 라이브러리 저널」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약 110 만 명의 미등록 이민자 중 백만 명 정도가 18 세 미만 어린이라고 한다. 때문에 미국 내 많은 활동가들과 언론이 이 불법 이민자 출신 아동들이 겪는 문제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 이 소설의 주인공 마누엘 플로레스 역시 이 수많은 아이들과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있다. 멕시코 남부 한 마을에서 살고 있던 열 두 살 소년 마누엘은 미국에 살고 있는 형을 만나러 가기 위해 무려 3년에 걸친 고난과 역경에 맞서기로 한 것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안락한 집을 떠나 스스로 홀로 서기를 결심한 한 소년에 관한 감동적인 이야기이다.

마누엘의 형 토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살고 있다. 토뇨는 멕시코 남부지역 오악사카에서 옥수수 농장을 일구며 살아가는 가족을 떠나 이곳 사람들이 북쪽으로 가는 기차를 일컫는 말인 '더 비스트 (The Beast)'를 타고 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갔다. 주로 미국으로 밀입국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기차에 몰래 올라탔는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차는 꿈과 희망, 즉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 이 기차는 별명 그대로 야만적인 짐승처럼 사람들의 사지를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괴물 같은 공간이기도 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이 기차는 더비스트 기차, 즉 '짐승 기차'라는 악명을 얻게 되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토뇨는 몇 년 전 집에 전화를 걸어 자기가 무사히 미국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온 가족에게 알렸다. 어린 마누엘 역시 그런 형의 용기와 형이 살고 있는 북쪽 세상에 대한 동경을 키우게 되었다. 마누엘은 결국 돌아가신 엄마 대신 자기를 돌봐준 그리운 형을 다시 만나 북쪽에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온갖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기차에 올라타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밤 마누엘은 오랫동안 모은 돈과 아빠 몰래 훔쳐온 스웨터, 할머니가 만들어 둔 음식을 가방에 넣어 기차를 타기 위해 집을 빠져 나왔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 도전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일단 기차에 맨손으로 올라타는 일 자체가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수 많은 사람들이

기차에 뛰어오르다가 떨어져 사지가 절단 되거나 죽기도 했고 아예 실종 되는 일까지 있었다. 게다가 막상 열차에 오르는 데 성공한다고 해도 열차에는 취약한 조건에 있는 이민자들을 먹이 삼아 살고 있는 갱단들과 서로서로 이익 문제로 얽혀있는 이민자들 집단이 있었고 이와 관련된 흉흉한 소문들이 떠돌고 있었다.

마누엘은 다행히도 무시무시한 첫 관문을 통과해 열차에 오르는 데는 성공했다. 하지만 곧 험악한 멕시코 경찰들에게 적발 되고 말았고 경찰들은 비록 불법을 지르긴 했지만 아직 어린 소년에 불과한 마누엘을 거칠게 폭행했고 기차에서 무자비하게 쫓아내버렸다. 하지만 마누엘은 포기하지 않았고 다시 두 번 째 시도를 감행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운이 더 나빴다. 경찰 보다 더 무섭다는 악명 높은 멕시코 갱단을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그 갱들은 마누엘이 어리다는 사실도 간과하고 마누엘이 가지고 있던 귀중품들을 모조리 빼앗았고 죽기 직전까지 때린 다음 그를 그냥 두고 떠나버렸다. 하루 종일 아무 것도 먹지 못한 채, 기차에 쓸쓸히 버려진 마누엘은 허기와 갈증에 시달렸다. 하지만 마누엘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뺨속까지 파고드는 공포와 외로움이었다. 마누엘은 이러다 형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이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죽게 될까 봐 두려웠다. 하지만 괴물 같은 사람들만 가득 차 있는 이 열차에도 기적처럼 선량한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왔다. 그들은 마누엘을 입히고 먹이며 치료해주었다. 마누엘은 따뜻한 그들의 보살핌 덕분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조금씩 회복할 수 있었고 마침내 그리웠던 형과도 재회하게 되었다.

하지만 꿈에 그리던 미국 생활은 마누엘이 꿈꾸던 것 과는 너무나 달랐다. 불법 이민자 신분인 마누엘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고 그건 형 토뇨도 마찬가지였다. 주거 환경이나 치안은 고향보다 훨씬 쾌적하고 안전한 편이었지만 언제 미국 당국에 체포 되어 멕시코로 쫓겨날지 없는 상황에 마누엘은 하루도 마음 편히 지낼 수 없었다. 마누엘은 곧 비록 가난했지만 사랑하는 가족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던 옛날이 더 좋은 시절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게다가 기차에서 고군분투하며 보냈던 시간들은 마누엘에게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와 상처를 남겼고 이는 마누엘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일을 더 어렵게만 만들었다. 마누엘은 고민 끝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마누엘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새 삶을 시작하게 될까? 아니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게 될까? 보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점점 이민자들에게 적대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미국 사회의 현실과 불법 이민자들의 삶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소설이다.

#### <저자 소개>

토니 존스톤 (Tony Johnston)은 100 권이 넘는 YA 소설의 작가이다. 마리아 엘레나 폰타노트 로즈 (Maria Elena Fontanot de Rhoads)는 어린 시절 겪었던 일 때문에 외상 후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멕시코 심리 치료사이다.